

《 종합토론 》

韓國學研究의 새 座標

참석자 : 李載燾(송실대), 韋旭昇(中國 北京大), 秋月 望(日本明治學院大), 林炳泰(송실대), 曹圭益(송실대), 柳永烈(송실대)
사 회 : 金文經(인문과학연구소장)
정 리 : 金槿泰

사회자(金文經소장) : 네, 그러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발표를 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토론해 주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셨던 선생님께서 다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룡선생님 발표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임병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林炳泰(송실대) : 사실 저는 오늘 이재룡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데 대해서 논평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한국근세사 연구의 동향>이라는 논문은 상당히 방대한 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평같은 것을 제가 할 수는 없고, 다만 몇 군데에 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워낙 이 근세사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사 연구가 새로이 밝아오른 것 같습니다. 해방이전과 해방이후로 나누어 본다면 여기에 상당한 성과의 차이가 있고,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해 보고 싶은 것 중에서, 당쟁사 연구에서 당쟁망국론이 시정이 되고 세도정치 망국론으로 변모하면서, 당쟁이라기 보다는 봉당정치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연구논문에 의해서 개진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봉당정치론에서 긍정적인 견해 중 봉당간의 당시 국정시무(운영)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혹은 정책적인 대립이나 의견이나 이견을 가지고 정권이 교체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논증된 논문이 있는지, 거기에 관해 말씀들어 보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조선후기 농업사 분야에서 광작의 현상이 일어나고 상업적인 농업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조선후기의 농업이 상당히 발전되는 것으로 많은 논문들에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광작이나 상업성을 띄는 농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현대적인 개념은 아니더라도 어떤 교통이라든지 유통·수요와 공급을 위한 통신 같은 사회현상도 나타났을텐데, 여기에 대한 발달현상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한 것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李載堉(승실대) : 당쟁사 연구가 해방 후에 거의 다뤄지지 못했던 것은 결국 조선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조선왕조 후기의 당쟁사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가산을 탕진했다면 아버지에 대한 자손들의 평가가 나쁜 것이나 마찬가지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습시다만, 아무튼 후기 당쟁사는 연구할만한 대상도 되지 못한다, 우리의 치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70년대를 접어들면서 이태진 교수가 1923년에 나온 안확의 <조선문명사>를 교주해 내면서 당쟁사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당정치론입니다. 그것을 낸 다음에 서울대학의 여러 젊은 후배들이 동조해서 몇 가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소득을 얻은 것은 주자의 당쟁론과 같이 당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정당과 같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단체이며, 주자의 봉당론에 나오는 군자당과 소인당을 원용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처럼 당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정치단체가 아니라 공존체제로 존재했던 정치형태가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숙종이전까지의 당쟁은 후대에 말하는 것과는 구별해서 생각해 야되겠다, 선조부터 광해군 대까지는 봉당정치가 성립하는 시기로 보고, 인조 이후로 현종 때까지는 서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싸움이 아니라 공존체제로 유지되었던 정치단체이다, 이렇게 여러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봉당정치론에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숙종대 이후로 과격한 당쟁시기가 계속됩니다. 강주린씨가 주장한 것처럼, 약90년 동안 서로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봉당정치론 주장하는 분들은, 궁여지책으로 봉당정치는 긍정적인 것인데 소위 일당전제체제, 이것이 부정적인 체제이고, 또 일당전제 체제의 가장 파행적인 정치형태가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제하에서의 당쟁사 연구 이래 한국사람들은 과당성이 강한 민족이라는 민족성론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당정치론을 내세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봉당은 긍정적인 것이고 세도정치가 파행적인 것이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세도정치 때문에 망한 것이지 봉당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조선후기 농업사의 문제로,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교통·통신·수송 등의 면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조선후기 농업사에 대한 연구도 대체로 60년대의 4·19라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4·19이전에 우리 역사학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증사학이 거의 주류를 이루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 오면 군사정권이 세워지면서부터 민족사관이라 해서 그 이전의 민족주의 사학을 위로부터 강요하는 이러한 두 가지 성향이 없지 않았습시다. 아무튼 60년대의 4·19이후로 우리 사회를 부정적으로 봐야겠느냐 하는 생각이 싹틔는데, 이것은 다분히 중국에서의 학풍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소위 中·蘇이념 분쟁이 생기면서 아시아 지역 생산양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明末·清初의 자본주의적 맹아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그러한 흐름이 한국에도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는 근대적인 요소가 없었겠느냐 해서 찾은 것이 바로 농업사에서 이제까지 정체적인 것으로 보았던 것을 다시 보

게되고, 상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자본의 문제·도상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상적으로도 실학이 일반 유학사보다도 더 많은 양으로 다루어지게 되고, 정치를 빼고는 경제적으로 농업생산력의 발전·상공업에 있어서의 상업자본의 발달, 또 사상적으로 실학에 있어서의 근대적 요소, 심지어 詩歌 문제·판소리 문제 등 여러문제를 합쳐서, 조선후기에는 의식상의 변화가 생긴다는 일련의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의 수전농업에서 주로 말하는 직파법에서 이앙법의 보급, 또 삼남지방에 있어서의 도맥 이모작의 보급, 한전 농업에 있어서 김종섭 교수는 농종법에서 견종법이라고 합니다만, 민성기 교수는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일년 一作식이 일년 2모작이나 이년 3모작으로 변화되어, 결국 이앙법과 견종법의 보급에 따라서 농업의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농업인구가 줄어드니까 종전에 1결을 경작할 수 있었다면,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노동력이 5분의 4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1결을 경작하던 사람이 5결을 경작할 수 있게 되니까 이른 바 광작운동이 일어나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들어 온 많은 新作物도 생산되기 시작하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급자족하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상품화 할 수 있는 농작물을 가리킵니다. 가장 많은 생산량을 냈던 것은 일본이나 중국에 팔기 위한 인삼과 국내에서는 담배재배, 생강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까만 그러한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양반은 곧 지주요, 일반양민은 소작인이라는 등식이 조선후기에 오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후기에는 서민도 지주가 되고 경영형 부농이 되는 반면, 양반도 몰락하게 되어 실록에 “지금 가난한 사람은 모두 양반이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만, 그럴 정도로 계층간에 변화가 크게 일어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농업생산력에 준하는 교통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힌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채완수씨에 의해서 밝혀진 조운관계가 있고, 가장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팔역지의 내용입니다. 각 지역에 상품이 모여들고, 그것을 배로 각 지방의 거점에 실어나르는 이러한 양상을 팔역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관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조선후기의 연구도 어느 의미에서는 지금 틀을 잡아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앞에 계신 여러 선생님이나 학생들께서 이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은 점이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은구 교수님 말씀하시지요.

朴恩駒(승실대): 이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말선초의 여러 정치집단의 형성원인과 그 성격에 관해 간단하게 여쭙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제 정치집단들이 서로 다른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을 분명히 구별해 볼 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이처럼 상이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정치집단들이 각각 표방하였던 정치적 요구내지는 이념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요.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변화와 정치집단의 변화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서로 다른 정치집단들의 주장내지 논리들의 사회 경제적 기초 및 본질적 차이(만약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등의 문제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재룡 : 먼저 사회계층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양사에서 말하는 신분은 법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분을 설명 해온 것은 양반·중인·상민·천인, 이렇게 통념적인 사회계층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영우씨 같은 분의 입장은, 신분이라면 분명히 서양사식으로 법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사회적인 통념으로 신분의 개념을 언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쪽은 그러면 서양사의 잣대가 한국사에 다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대구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양사의 시대구분의 잣대를 가지고 한국사에 적용하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피한 얘기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인 통념으로서의 사회계층을 기본적으로 다루어야지 법적으로 신분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실질적으로 양반이나 일반 양민이나 꼭 같다는 얘기인가, 하는 논쟁입니다. 와그나 교수의 반론은 이미 여말선초에 권문세가의 대토지 소유제로부터 정치주도권이 중소지주층인 양반으로 옮겨왔다고 그랬는데, 또 일세기가 지난 다음에 중소지주층인 사림이 등장한 것은 무엇인가, 꼭 같은 중소지주층이 여말선초에도 나타나고 또 16세기에 나타나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좋은 답이 되는 논문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려말 대지주의 토지 소유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2천결 3천결의 숫자가 고려사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15~6세기에 들어와서는 대토지 소유제라는 것은 없고, 많은 것이 2백결 혹은 3백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5~6세기는 고려말의 대지주에 비하여 중소지주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15세기가 여말의 대토지 소유에 의한 농장, 요즘 말을 빌리면 政經이 유착된 농장이겠습니까만,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대토지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위화도 회군 이래 조선왕조 건국 세력에 의해서는 부정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농장이 국가에 의해서 몰수되었다기 보다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서양사에서 장원이라는 것은 불수적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임유니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불수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말 전체 개혁은 이러한 토지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되었고, 조선시대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 법질서 속의 농장으로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고려시대 농장의 유흔이 많이 남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소작인으로 평가되는 전호의 문제입니다. 17세기에 오면 분명히 경제적인 관계로 소작인 제도가 바뀌어 지게 되지만은 15~6세기에는 좀 다릅니다. 15세기에는 고려적인 성향이 더 강하고 16세기에 오면 신분적인 예측성이 훨씬 약화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역시 중소지주층이 많이 늘어나고 확대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훈구라고 불리우는 보다 더 많이 토지를 소유하였던 계층을 제치는 16세기말에 정치주도권을 잡은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는, 말하자면 중소지주층이 여말선초 이래로 수가 확대되어 비판 세력의 저변이 넓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송대에 강남개발이 되면서, 중소지주층이 등장하고 당대까지의 대토지 사유제가 중소지주층으로 넘어가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자꾸 확대되면서 지배층이 될 수 있는 수요와 지변이 확대되어가는 것이니까, 결국 사림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지주층의 저변확대·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증대·그들의 정치세력적인 결집, 이러한 문제가 한데 얽혀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 달리 다른 질문을 하실 선생님들이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밖의 다른 질문은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기회에 해주시고, 다음은 위옥승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옥루몽과 중국의 전통적 유교 음악관>에 대해서 국문학과의 조규익 선생께서 질문해 주시는 단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曹圭益(승실대): 위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신 요지는 의견상 상당히 간략해 보입니다만 제가 읽었던 원래의 논문은 백페이지가 훨씬 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옥루몽이 사실상 우리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바탕으로 우리학계에서는 전혀 착안하지 못했던 음악적 요소의 문제를 외국학자인 위 교수님께서 발견하셨고, 또 이와같이 방대하고 치밀하신 고찰을 행하신데 대하여 후학으로서 먼저 경의와 찬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자가 과묵한 닥인지는 몰라도 한국과 중국을 통털어서 아직 이 분야에 이 정도의 논문이 발표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단순한 소재로서의 음악이나 음악관을 거론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음악을 이야기의 구조적 전개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방면 연구에 하나의 모범적 선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설에 대해서는 물론 음악에도 문외한인 제가 사실상 본 논문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외람된 일입니다만, 이왕 토론자로 지적이 되었으니까 논문을 읽는 도중에 생각한 몇가지 사항을 사족삼아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비교문학이라든가 비교문화의 관점에서의 고찰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셨을 것입니다만 제목에 나타난 ‘중국의 유교 음악관’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유교 음악관 이라는 것은 禮記의 樂記 또는 유교 경전에 등장하는 곳곳의 음악관계의 언급이라든가, 또는 순자의 樂論을 중심으로 성립될 수 있는 일련의 음악론 내지 음악관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들이 중국 땅에서 일어난 음악 이론이고 그 예로 든 작품들도 모든 중국의 실제 작품들이지만, 적어도 이것이 봉건시대에는 동아시아 일련의 지배계층들이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면서 지니고 있었던 보편적 음악관이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 존재하던 각 민족의 음악은 계층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이원적으로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주로 유교적인 음악관을 지니고 있었던 지배계층의 그것과 주로 토착음악을 중심으로 갖고 있던 피지배계층의 음악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옥루몽은 지배계층의 체질화된 음악관일지언정 중국만의 것으로 한정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특히 본 작품이 조선 땅에서 조선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품이라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조선의 특정계층의 유교 음악관일 뿐이지요. 따라서 제목도 ‘유교 음악관’ 이라고 해야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이 작품의 주제와 이야기 전개의 수단으로 삼은 음악과의 관계입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는 불교적인 무상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 점은 위 교수님의 논문에서도 佛理神道로 始末한 작품이라는 규정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유교적 세계관이나 음악관이 주축이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 않은 듯합니다. 내용이나 구조에 있어서 유가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대의 이념체제에서는 유교와는 상반되는 입장의 불교적 주제의식의 구현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해명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사상을 표상하면서도 유교 음악관을 전편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회 문화적 필연성 혹은 작가의식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작품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이겠습니까만 옥루몽 줄거리의 짜임에 있어서 음악을 상당수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음악을 상당수 도입했다는 것은 작자의 해박한 음악적 지식을 인정할만한 요소가 되면서도, 문학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안이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당시라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여타 작품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 전개의 우연성을 약간 덜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음악의 도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겠지만 음악의 잦은 도입이 너무 작위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그러니가 음악 자체를 많이 도입했다는 사실이 그 작품의 질적인 우수성을 보증해 주는 조건은 결코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네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논문에서 본 작품의 고도의 예술적 측면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때 말하는 고도의 예술적 측면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의 의미인가, 단순 소재이든 구조적 요인이든 음악이 등장했다고 해서 고도의 예술성이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음악 이외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측면이 따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약간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품의 연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보지만, 대강 짐작을 해 볼 때 그 전대의 구운몽보다는 후대의 작품으로 보겠는데, 구운몽과는 그 주제 의식이라든가 또 이야기 전개의 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친연성을 인정할만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시적인 관계의 해명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옥루몽에 비한다면 그 수에 있어서는 보잘 것이 없지만 구운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계기마다 음악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구운몽의 주인공인 양소유가 양류사를 읊어서 진채봉과 만난다거나 또는 남전산의 도인으로부터 거문고를 배워서 후일에 쓸 것을 암시했다든가, 낙양의 시모임에서 시를 지어 계섬월과 만난다든가, 그 전날 남전산 도인으로부터 배운 거문고로 곡조를 타서 정경패와 가춘운을 만났다든가, 양소유가 옥통소를 불어서 인간세계와의 하직을 암시했다고 하는, 여러가지 음악적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옥루몽 자체의 독립적인 음악성의 특징을 거론하고 그것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전에 등장했던 구운몽과의 관계도 약간은 거론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이 작품이 등장하는 것은 사회적인 배경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가 왜 이러한 시기의 음악

관을 바탕으로 반오랑캐적인 사고를 펼 수 밖에 없는가, 거기에 보면 명나라라는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오랑캐의 세력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자 자신 혹은 주인공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제시하고 그에 반하는 오랑캐의 음악들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명나라를 중심으로하는 정통음악의 편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당시 청나라에 예속되어 있었고 일종의 화이관에 근거하고 있었던 한 지식인의 반발심리가 작품 속에 그런 식으로 표상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섯 가지에 걸쳐 소략하게나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이러한 몇가지 질문들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든가 또는 논문이 지나친 부분들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실상 이 논문에서는 그 주제 자체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는데, 읽어 보면서 이 논문이 앞으로 확장된다면 이러한 문제까지 거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논문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의 질문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가능하신대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韋旭昇(중국 북경대): 질문을 해 주신 조규익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것은 이 소설 옥루몽에 대해서 제가 쓴 다른 논문이 있습니다. 먼저 발표된 것인데, 제목은 〈옥루몽, 조선 고전소설 가운데서의 전쟁과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이 소설 옥루몽을 정리하고 번역하여, 중국에서 출판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도 이 번역서 앞에 서언으로 실었던 것입니다. 이 논문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고전소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제가 느끼기에는 사상적으로 보나 예술적으로 보나 제일 뛰어난 소설은 옥루몽이라 이렇게 봅니다, 저는 논문 가운데서 어쨌든 조선 고전소설 가운데서 제일 뛰어난 소설로 보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것의 사상성에 대하여는, 비록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지만은 당시 남영로가 존재했던 당시 조선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술성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음악적 因素에 대해서도 그 논문에서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조 박사께서 물어 보신 문제들을 그 논문에서 거의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옥루몽과 중국의 전통적 유교 음악관〉이라는 논문을 쓸 때, 이전에 나왔던 논문을 염두에 두고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말씀 드려야 할 것은 소설의 중심사상이 불교인가, 유교인가 하는 점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교가 아니라 유교입니다. 불교는 그 소설의 앞과 마지막 부분에 조금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주인공들이 세상의 흥진을 간파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에 올라갑니다. 제1회와 마지막 제64회에 언급되었을 뿐인 이런 부분들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 전체 부분은 모두 유교적인 사상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흥진이라는 것은 부귀영화가 다 허황하다, 기실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역시 벼슬을 하고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우고, 개인의 부귀영화를 얻자는 그런 사상을 많이 선전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어 구운몽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제가 보전에는 옥루몽 가운데서의 유교사상은 구운몽보다 더 많고 옥루몽에 있는 불교 사상은 구운몽보다는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도 유교의 음악관과 결합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교도 자체의 음악관을 가질 것입니다. 묵자도 자체의 음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있어서는 묵가의 음악관·도가의 음악관·불가의 음악관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랑캐의 음악에 대해서입니다. 오랑캐의 음악관에 대해서 이 옥루몽은 경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설 옥루몽은 오랑캐 전체, 남만·북적 모두를 아주 경시하고 심지어는 적대시하는 사상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런 사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당시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침략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선 다음에는 그 청나라를 미워하고 명나라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복구시키자는 그런 사상이 강하게 조선 사람들 사이에는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상과 목적, 반청복명 사상의 문학적인 표현이 옥루몽 뿐만 아니라 다른 군담소설에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군담소설 가운데서 명나라 혹은 당나라 때에 오랑캐에게 침략을 받고 싸우고, 물리치고, 그러한 전투에 참가하는 장군이 공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얘기의 사상적 배경은 바로 청나라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직접 청나라에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반청복명 사상을 당장 실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문학의 한 형식인 허구로서 자신의 이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의 양창곡이나 벽성선이나 명나라 사람이거나 실지로는 다 중국인의 옷을 입은 조선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조선의 소설입니다. 때문에 오랑캐의 음악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데 대개 그 원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질문을 여러가지로 해주셨는데, 몇 가지는 이미 다른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있고 해서, 이상으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박사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 예,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는 의사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교수님께서 <옥루몽-조선고전 소설가운데서의 전쟁과 평화>를 한번 상세하게 읽어 보셔야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좀더 다음에 만나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선생님 가운데, 옥루몽 연구를 많이 하신 호서대의 장효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장교수님께서 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張孝鉉(호서대) : 위 교수님의 발표를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위 교수님께서 전에 비교문학회에서 발표하셨던 내용을 얻어 먼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물을 접하면서, 국내 학계에 옥루몽에 관한 연구가 아직 다각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음악적인 측면의 깊이 있는 연구가 나왔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라웠고, 또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 감탄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발표를

대하고 다시 한번 깊이있는 학문적 성과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도 전에 옥루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로 옥루몽의 이본의 계통을 추적하는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옥루몽이라는 작품을 19세기 전반에 살았던 남영로라는 작가가 창작했다는 설이 그전에 이미 차용주 선생님이나 성현경 선생님의 의해 밝혀진 바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본의 계통을 추적하는 가운데서 한문으로 이 옥루몽이 지어졌고, 그후에 다시 국문으로 번역이 되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읽혀져온 명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위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저 자신이 많은 계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 내용으로부터 얻은 착상을 토대로 저도 좀더 각 방면에 걸쳐서 작품분석에 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의 이 발표내용과 관련을 해서 제 생각을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위 교수님께서 특히 옥루몽에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음악적인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국의 전통적 유교음악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시고 역시 제목도 그렇게 정하고 계십니다. 조금전의 질문에서 조규익 선생님이 이 작품의 전체적인 사상이 불교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이 작품이 위 교수님의 발표에서처럼 근본적으로 유가의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고 불교적인 것은 국부적인 것이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옥루몽이라는 작품 속에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의 음악적인 요소들, 또 작품 속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작가인 남영로가 피력하고 있는 음악관이 어떤 하나의 줄기로 파악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남영로의 작가의식이 유가의의식에 기초하고 있고, 또 남영로의 음악관 역시 유가적인 음악관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남영로가 살았던 당대 19세기 전반 우리 조선사회에 있어서, 옥루몽이 나오게 되는 배경과 작가의 음악관의 상관성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또 그점이 옥루몽에 나오고 있는 음악적인 요소와 음악관을 하나로 꿰어서 분석해야 할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영로가 그 작품속에서 주인공들을 만나게 하고 어떤 줄거리가 전개되게 하며, 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서 음악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70여편에 달하는 여러 형태의 시가 작품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전체를 꿰뚫는 것은 궁극적으로 작가의 정치의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 교수님의 발표에서 그러한 국면들이 물론 제시되고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집중적인 주제로서 이 작품에 나오는 음악적인 요소와 음악관을 분석하는 중심 테마로서의 정치의식이라는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이 두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음악을 배격하고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기본의식이 우선 중심에 있고, 그러한 것에 입각해서 여러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과 거기에 부수되는 음악관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치의식에 입각해서 피력되고 있고, 그것이 비록 그 근본에 있어 전통적인 유교의 음악관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19세기 전반의 조선 사회에서 요구되는 작가의식이 이러한 음악관에 피력되어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를 잘 듣고 질문이 좀 산만하게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옥루몽에 나타나고 있는 사상이 유교적인 음악

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작가 남영로의 음악관을 하나로 꿰뚫어서 분석을 할 때, 그것은 19세기 전반 조선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정치적 의식, 나라를 바로 잡고 민생을 보살피는 그러한 의식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두어져 분석되어야 하고 그외의 여러가지 요소들은 일단은 그것을 중심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옥승 : 옥루몽의 작가 남영로가 자신의 작품에 있어서 음악적인 요소를 이렇게 많이 첨가한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유교적인 음악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 역시 그 당시 조선사회의 여러가지 형편과 문화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데는 남영로가 생존하였을 당시는 사상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과도기적인 성격을 띤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봉건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상이 나왔지요. 사회적으로 보면 도시생활을 위주로 하거나 상업을 위주로 하는 시민계층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통적인 봉건사회를 어떻게 개조하고 한 걸음 나가게 하여 근대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실학사상 역시 그러한 생각들의 반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품에도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학자 텔러는 자신의 예술철학이라는 책에서, 여러가지 사상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사회의 변동시기에는 왕왕 음악이 비교적 활발히 그 역할을 수행하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옥루몽에서 음악적 因素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역시 이와같은 사회적 환경과 배경이 관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보면 18~19세기 문화 가운데 그 음악적 요소가 차차 늘어나는 것입니다. 시조·가사·판소리·잡가 같은 것들은 그 이전 시기 보다 더 활발히 창작되고 유행되었습니다. 또한 시조를 짓는 사람은 그 이전에는 그저 문인들이었는데, 이때 들어와서는 많은 하층민들도 중인들도 다 시조를 창작하는 것입니다. 판소리 역시 노래와 이야기를 결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8~19세기에는 당시의 조선 문학에 있어서의 음악적 요소가 보편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루몽 가운데의 음악적 요소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역시 이러한 문학적 배경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정도인데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자 : 네, 질문에 대한 회답이란 항상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과 회답이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일본의 한국학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아끼쓰끼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유영렬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유교수님 부탁드립니다.

柳永烈(송실대) : 아끼쓰끼 교수님으로부터 일본의 한국학 연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戰後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 일본에 있어서 현재 한국학 연구가 어

떠난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일본의 한국학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역사연구의 최근 동향에 있어서는 주로 한국 근대사와 관련된 부분의 연구동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의 학계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문제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본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현안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마지막 부분인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말하자면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과 관계되는 몇가지의 제 생각과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사관이 우리 한국사가 내재적으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정체사관을 주장한데 대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에 이러한 내재적 발전론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물론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은 사회·경제사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학계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사관과 무관하게 우리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발전적 입장에서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일본학계가 과거에 개항 이전 적어도 일본자본주의가 진출하기 이전의 한국사회가 봉건사회 이전의 단계에 있었다고 한 주장에 비해, 우리 한국학계에 있어서는, 이미 개항 이전에 적어도 18세기 후기에는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텄다든가 하는 주장을 해왔고, 또 과거의 일본학계가 외래 사상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개화 사상은 이미 그 이전에 실학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서양에 관한 서적들을 봄으로써 형성되었다든가, 또 과거에 일본의 역사학계가 한국 민족은 근대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국학계에서는 일제에 병합되기 이전에 한국사회에서도 근대적인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의 내재적인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론을 바탕으로 하는 혹은 타율성론을 바탕으로 하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그러한 노력 속에서 한국역사 자체내에서 근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검출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추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계에서는 이러한 내재적 발전론의 재검토와 관련시켜서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은 보편적 발전단계설을 전제로 해서 先進과 後進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역사관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한다든가, 또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것은 한국의 非아시아성, 혹은 부르조아적인 요소가 변혁 발전의 계기로서 중요시되고 반면에 일본의 침략성인 전근대적 아시아적 요소의 잔재에 의했다든가 하는 논리를 펴므로써 내재적 발전론을 주장하는 것은 일제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재적 발전론과 일제의 침략성을 결부시켜서 재검토하는 시각,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재적 발전론을 침략과 결부시켜 보려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秋月 望(일본 명치학원대): 일본에서 나온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검토라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세계 정세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본주의의 승리같은 분위기가 생기면서, 그러한 세계의 정세와 또 한 가지는 그 중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게 됨으로써, 말하자면 1945년에 일단 좌절된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성공을 했다는 분위기가 일본 국내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한국사 연구자들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 왜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발전론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율성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관을 극복하는데에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그 방향을 찬성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에 있는 내재적 발전론을 갖다가 지금의 세계정세를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의 45년까지의 침략정책을 비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이나 힘에 의해 타율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뿐이 아니고 조선후기의 발전이라는 것이 근대 서양세계식으로 발전하는 것은 마르크스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역사를 보는 시각하고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의 사관인 사회진화론에 의거하면 세계의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그런 이론과는 다른 방향에서 극복해서 초월할만한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를 잡는 것이 새로운 역사이론으로 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의 재검토입니다.

유영렬: 다음으로 두번째 문제는 조경달씨의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의 평가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도 내재적 발전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화초에 청국은 중화자존 의식을 가지고 서양의 근대적 힘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반식민화로 전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일본은 서구의 근대적 힘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명치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매진한 결과로 독립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발전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880년대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온건 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개화의 모델로 삼아서 이른바 東道를 지키고 西技만을 수용하자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명치유신을 개혁의 모델로 삼아서 본질적인 근대화, 다시 말하면 서양의 물질문명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와 정치문화까지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노선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근대주의라고 볼 때에, 일본도 역시 이러한 근대주의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과 독립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개화기에 있어서 본질적인 근대화를 통해서 국가의 부강을 이룩하고 독립을 유지하자고 하는 급진 개화파의 노선이 올바른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로 한국학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경달씨는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일종의 도덕주의에 기반을 둔 온건 개화파가 사회

진화론의 극복에 의한 근대초극의 방법과 방향성을 가졌다고 해서 온건 개화파의 노선을 강조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한국사회라고 하는 것은 근대를 초극하는 것이 아니고 근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단계라고 볼 때에, 그러한 논리에 의문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경달씨는 온건 개화파가 지향했던 왕도론 속에 패도로서의 일본 침략에 대한 강인한 비판과 저항의 논리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사회 속에서 약자의 도덕주의가 강자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확보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근대적인 역량을 온건 개화파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도덕주의를 통해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것,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경달씨는 온건 개화파의 왕도론, 다시 말하면 도덕주의가 애국계몽 운동으로부터 3·1운동까지 계승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건개화파라는 것은 東道西技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국계몽파는 기본적으로 변법자강을 그들의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건 개화파가 동도서기적인 도덕주의라고 한다면, 애국계몽파는 변법자강적인 실력주의와 자강노선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계몽운동을 이 온건 개화파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한국학계에서는 급진 개화파의 노선을 애국계몽과 연결시키는 입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끼쓰끼 교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秋月望 : 조경달씨의 논문을 저도 읽어 보았는데, 대충 그분의 생각을 제가 설명해서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경달씨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력주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당시에 실력이 있었던 것은 침략한 일본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급진 개화파가 일본이든 급진 개화파든 그 방침은 마찬가지로 다만 다르다는 것은 일본측이 더 힘이 세었다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일본 비판의 논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과 후진의 문제인데,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한국사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 아까도 말씀드린 자율성이론과 정체사관을 들 수가 있고, 그때 나오는 것이 선진과 후진이라는 용어입니다. 선진과 후진을 구분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 서양문명과의 격차가 얼마나 있는가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일본을 선진으로, 한국을 후진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자율성, 그러니까 일본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결론도 나오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체성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戰後의 역사학에서는 기준은 같은데 이런 형식을 거꾸로 적용해서, 일본에 남아있던 아시아성에 주목을 하고 침략당한 조선이나 중국 기타 침략대상이 되었던 지역의 非아시아성,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맹아문제 혹은 서양식 근대로의 지향성 등을 평가하는데에서 비아시아성을 강조하고 충분히 근대로 이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발전의 길이 있었다는 것을 찾고, 거기에서 선진과 후진의 역전이 일어나는 논리로 해석해서 45년까지의 일본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것이 일본에서의 전후역사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논리를 사용하면서 다만 일본과 피침략지역을 뒤바꾸어 해석한 것이지 논리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일본이 만약 경제대국도 아니고, 가난한 국가였다면 어느 정도의 설득력있는 논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일본이 더 커지고, 마르크스주의의 사관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현재 자유화되고 개방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을 보면서 생각할 때에, 과연 일본의 침략전쟁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논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본에서 한국이나 중국을 위해서 일본의 역사교육이나 교과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연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나 일본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런 논리가 얼마나 유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일본 국내에서 얼마나 설득성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많은 공헌을 해왔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것만으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저희들 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영렬 : 역시 앞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미끼씨의 서구적 근대 혹은 사회진화론의 문제입니다. 나미끼씨는 서구적 근대 또는 그 아류로서의 일본적 근대의 가치체계, 특히 사회진화론의 수용에 의한 제국주의 비판의 불철저가 그후 타협주의적 민족주의자와 친일파를 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구적 근대, 이와 맥락이 통하는 사회진화론의 수용, 이것이 제국주의 비판을 불철저하게 만들고 이 제국주의의 불철저가 타협주의적 민족주의자 내지 친일파를 내게했다는 논리입니다. 일견 보아 논리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또 달리 본다면 당시 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사람들은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지 않았던 사람들 보다는 제국주의에 대한 속성을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자의 약자지배라는 사회의 현실을 이해했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진화론으로 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는 현실이기 때문에 약자가 강자화되어야 한다는 약자의 강자화 논리로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제국주의의 속성을 더욱더 철저히 알고 여기에 대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敵인 상대방의 힘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정면대결을 피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먹고 힘을 내서 바위를 가르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회진화론의 수용자들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보다도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불철저했든가의 문제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근대지상주의와 근대회의주의의 분기가 일본의 식민지 침략에 대한 타협·비타협의 성향을 낳게 했다. 다시 말하면 근대주의는 침략에 대한 타협이고 이것은 비판되어야 하며, 근대반대론은 침략에 대해 비타협적이고 이것은 긍정적이라는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말에 있어서 근대주의자·

애국계몽주의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주의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리얼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대반대론의 입장에 있던 항일의병들은 당시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던 적의 침략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아이디얼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항일의병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근대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 있었고, 또 중국에 대한 종속을 당연시하는 맥락과 통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항일의병이 국가의 동등성에 기초한 진정한 자주주의가 있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당시 개화기에 있어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인가, 오늘날의 일본의 현실에서 근대주의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당시 개화기의 한국상황을 서구의 근대화를 극복하는 논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당시 한국의 개화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역시 근대를 추구하는 근대주의를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지상주의와 근대회의주의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秋月望 : 나미끼씨의 논리는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역사이론으로 크게 확립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사상사쪽에서의 개별분석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미끼씨가 내재적인 발전론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이번 6월에 썼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는 일본의 조선사연구회에서도 주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특수한 문제의식인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생각이 일본의 연구자들에게는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문명지상주의에 대해서 아시아 원리주의적인 것을 설정하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라든가 내재적인 발전을 지향해서 새로운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을만한 개별 연구도 진행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러한 요구의 필요성이 일본 근대사 연구 중에는 반영되어 몇 편의 논문이 나와 있는 상태라는 정도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앞으로 이 연구에 종사하는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 또 많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밝혀나가야 될 문제이겠고, 2세기 한국이 나아갈 길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와 똑같이 일본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 가면서, 방금 제기되었던 여러가지의 문제들과 함께 해결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역시 자본주의 문명이 과연 이대로서 좋은가 하는 문제까지와도 직부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다양한 국내외적 현실조건이 변화되고 있고, 오늘의 세미나는 바로 그러한 변화가 학술적인 분야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중·일의 학자들을 모시고 전망해 본 자리였습니다. 여러 시간 오늘 <한국학 연구의 새 좌표>라는 국제학술회의에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학생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